

철없는 삼촌 길들이는 방법

영화 '어른도감' 23일 개봉
5월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유쾌함 속 잔잔한 가족애
엄태구·이재인 캐미 눈길



아빠의 장례식날. 엄마도 없이 혼자 남은 중학생 딸 앞에 낯선 사람이 삼촌이라며 나타난다.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삼촌은 돌아가지 않고 집까지 따라 들어와 놀러왔을 기세다. 그러면서 술술 아버지의 보람을 이야기해 준다. 눈치 빠른 중학생 조카는 삼촌의 공짜이름을 집착하고 잔뜩 경계심을 품고 삼촌을 대한다. 23일 개봉하는 김인선 감독의 신작 '어른도감'은 너무 일찍 철이 든 조카와 철이 덜 든 삼촌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삼촌 '재민' (엄태구 분)은 어린 조카 '경언' (이재인 분)을 만만히 보고 집근한다. 목표는 경언 아빠의 사망보험금 8000만원이다. 그러나 요즘 중학생이면 어지간한 것은 다 안다. 경언은 재민이 잠든 사이 재민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를 살살 훑는다. 한참 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삼촌은 돈 많은 여성을 등쳐먹고 사는 제비였던 것. 재민은 법정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경언에게 돌아갈 사망보험금을 빼돌려 잡적하지만, 경언은 기어코 재민을 찾아내 급소를 건어차 버린다.

하지만 재민은 이미 자신의 빛을 갠데 보험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황. 재민은 다음 타깃인 약사 점회를 공략하기 위해 경언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경언은 어쩔 수 없이 부녀 사이를 가장한 사기극에 동참하게 된다.

'어른 같은 아이'와 '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정반대 캐릭터지만 두 사람에게서는 외로움과 혈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에 고아가 될 뻔한 경언은 겉으로 보기엔 강한 아이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남몰래 울음을 터뜨린다. 꿈을 좇아 집을 나간 재민은 차가운 세상에서 꺾이고 상처 입고 실패한 거들했다. 두 사람 모두 태연한 척,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에 사무친 처지다.

그런 두 사람을 필연적으로 이어주는 것은 혈연이다. '피는 물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두 사람은 혈연 때문에 혹은 혈연 덕분에 서로를 못 본 척하지 못하고 차츰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해나간다. 김인선 감독은 "어른 같은 아이, 아이 같은 어른이 만나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 할까,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밀정', '택시운전사' 등에서 중저음 목소리와 가리사와 있는 표정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엄태구는 이번 작에서는 절절한 능글맞은 재민 역을 능숙하게 소화해냈다.

엄태구는 "대본을 보고 재민 역을 너무 하고 싶었다"며 "저에게 재민 캐릭터는 일종의 도전과 같은 것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출연했던 어떤 역할보다 대사가 많아 대사를 외우는 데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엄태구와 합을 맞춘 이재인 역시 아빠를 여리고 슬 품에 빠진 모습부터 재민의 급소를 건어차는 당찬 모습까지 소화해내며 성인 연기자 못지않은 연기력을 입증했다. 지난 5월 폐막한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화차 매진 기록을 세우며 넷박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관객의 입소문을 바탕으로 정식 개봉에 성공했다. 김 감독은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고 설렌다"며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유쾌한 기분, 밝은 기운을 가득 담아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상큼한 로맨스에 풍덩

시청률 10% ... 지상파 중 독보적

무더운 여름 상큼한 로맨스를 보여주는 SBS TV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사진)가 방송 16회(프리미엄CM 제외 8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했다.

최근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는 평일 미니시리즈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가품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시청률 5% 넘는 작품도 찾기 힘든 지상파로서는 더욱 그렇다.

1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한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시청률은 8.4%-10.5%를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한 KBS 2TV '러블리 호러블리'는 3.9%-4.5%, MBC TV '사생결단 로맨스'는 3.1%-3.5%, 오후 11시 방송한 JTBC '라이프'는 4.591%(유료가구)였다.

전날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서는 우서리(신혜선 분)와 공우진(양세종)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한층 가까워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시청률 45%를 넘긴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으로 신혜선이 된 신혜선의 새로운 도전으로 관심을 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역시 신혜선의 변신이 호평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신혜선은 전작에서 다소 우울했던 이미지를



탈피, 몸은 서른이지만 마음은 열일곱 소녀 그대로인 우서리를 맡게 그려내며 극의 경쾌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이 잠들어 있던 사이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공우진과의 로맨스도 어색하지 않게, 귀엽게 소화 중이다.

동화 같은 순수함과 아기자기함을 콘셉트로 한 작품 자체도 무더운 여름 불쾌감 없이 청량한 마음으로 보게 만드는 매력에 있다.

박시후·송지효를 내세운 '러블리 호러블리', 지현우·이시영이 나선 '사생결단 로맨스' 두 작품 역시 같은 로코(로맨스코미디) 장르이지만 큰 두각은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선전이 더욱 눈에 띈다. /연합뉴스

양희은·성시경, '늘 그대' 19일 발표

협업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

가수 양희은이 후배 성시경과 손잡고 컬래버레이션(협업)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 아홉 번째 곡을 선보인다.

14일 소속사 용달샘에 따르면 양희은은 성시경이 프로듀싱과 작곡·코러스에 참여한 싱글 '늘 그대'를 19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

'늘 그대'는 양희은이 지난해 3월 발매 듀오 악동뮤지션과 선보인 싱글 '나무' 이후 1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으로, 심현보가 가사를 다한 발라드다.



양희은은 2014년부터 '뜻밖의 만남'이란 프로젝트로 신곡을 선보였다. 협업 뮤지션이 단순한 듀엣이나 피쳐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사·작곡·프로듀싱 등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8 메이저리그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이웃집 찰스(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애니캐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화첩기행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40 TV속의 TV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0 판다랑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00 뒤뚱뚱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파파독 2 15 도토리 V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0 할머니네 통강아지 스페셜	00 2018 아시안게임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인사이드	55 할머니네 통강아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시간	00 친애하는 판사님께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구내식당-남의 회사 유랑기	10 파일럿 방과 후 합합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40 2018 DMZ 평화콘서트 원 코리아 평화의 하모니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쿵
05:30 통일의 길 (도란봉약단)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뽀뽀 뽀로로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티톡!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19:50 배워서 남줄래(재)
08:00 당동맹 유치원1~2	<우울증이 애매해요?>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급 X	14:30 로보가 폴리	<그 여름의 끝, 그리스 섬 기행 - 환상군도 스포트라이트>
08:45 랄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두다다쿵	15:15 파파리카	<여름 앞자리기행-청산에 살라 하네>
09:30 원더보스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다큐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30 랄랄라 뿌우(재)	25:05 지식채널e
<발사미 안심스테이크와 수박샐러드>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6일 (음 7월 6일 庚辰)

子	36년생 상의 한다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느니라. 48년생 예방에 철저해야 한다. 60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탁 트이어나르다. 72년생 인위적으로 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 84년생 지난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오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4, 62	午	42년생 절대로 속단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54년생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백 번 낫다. 66년생 조금씩 숨통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78년생 빨리 체념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90년생 기운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판국을 떨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53
丑	37년생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49년생 잘못 하다가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61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73년생 돈은 생기지만 지출되는 액수가 더 크다. 85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09	未	43년생 성사 시킬만한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아예 삼가라. 55년생 상대의 배려에 대하여 한없는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67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다. 79년생 변수는 없다. 91년생 순간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72, 45
寅	38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0년생 기본 체계를 중시하라. 62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전을 이끈다. 74년생 의심스럽다면 확인하는 것만이 손실을 최소화 한다. 86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 30, 87	申	44년생 확실히 대비해야만 한다. 56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봉합되어 있는 상태이니 잘 살펴야겠다. 80년생 반응이 중요하다. 92년생 이 보 전진을 위해서 일 부 후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행운의 숫자 : 65, 17
卯	39년생 빛 좋은 개살구에 현혹 되면 곤란해진다. 51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단성 있게 전환하라. 63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재도전 하자. 75년생 한 가지만 해결되면 연쇄적인 효과를 본다. 87년생 실효적 관점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31	酉	45년생 자체 내에서 해결 될 수도 있으니 겁먹지 말라. 57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69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은 피하지 말라. 81년생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자. 93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7, 07
辰	40년생 완성도를 높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52년생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폭넓은 변수를 갖게 된다. 64년생 현대에 적응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76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날 것이다. 88년생 기점점을 넘어서면 부족함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49, 64	戌	34년생 빈틈이 없어야만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46년생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58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다. 70년생 상대의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느니라. 82년생 애매하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89, 97
巳	41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이다. 53년생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65년생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변수가 다채롭게 작용할 수 있겠다. 77년생 보류하다가가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다. 89년생 자제하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행운의 숫자 : 54, 91	亥	35년생 기대했던 제안이 들어 올 수 있다. 47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야만 후사를 도모 할 수 있다. 59년생 누락 되어 왔던 것이 모양새를 갖추게 되리라. 71년생 예상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83년생 눈 깜박할 사이에 전개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4, 6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팀 ☎010-9790-8237